

김교신과 무교회주의

정영순(한국학중앙연구원)

I. 머리말

조선은 근대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식민 지배를 통해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상적 모색과 실천적 운동이 전개되었다. 식민지 시기동안 잃어버린 민족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당시 지식인들은 상당한 고뇌를 겪으면서 다방면의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 지식인들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특히 김교신은 유교와 그리스도교를 비교하면서 한국사적 특수성에서 벗어나 세계사적 보편성에 입각한 기독교사상을 연구하였다. 그는 무교회주의가 갖는 의미를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도록 적용하고자 노력한 기독교 사상가이자 운동가였다. 본고에서는 일제시기에 김교신이 벌였던 무교회주의 운동이 식민지를 탈피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김교신의 생애

김교신은 1901년 4월 18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김염희였고 1903년 20대 초반에 폐병으로 사망하였다. 김교신은 아버지의 이른 죽음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갈망으로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깊은 인연을 맺었다고 추측된다. 그는 함흥차사 박순과 함흥에 가서 죽음을 면했던 김덕재의 후예로서 엄격한 유가적 분위기에서 성장하였고, 그가 배운 유교적 지식은 학자적 기질, 신앙적 자세, 신앙교육법, 애국심으로 발전하였다.¹⁾ 그는 서당을 나와 함흥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²⁾ 1918년에는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이듬해 일본에 유학하였다.

김교신은 유교적 인생관 및 사회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1920년 4월에 동경에서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 조직의 체질적 결함과 세속적인 교회의 내분을 목도하면서 교회 출석을 단념하고 방황하게 되었다. 같은 해 일본의 <무교회 기독교>의 창시자인 우지무라 간조오(内村鑑三)를 만나 함석헌 등

1) 오지원, 『김교신의 신앙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09, 83-87쪽

2) 박찬규, 앞의 책, 15-16쪽

과 함께 7년간 그의 성서 강의를 들었다.³⁾ 우지무라 간조는 서구 교회가 조직과 평면적 신학 논리로 인간화된 교권주의를 청산하지 못하고, 복음의 본질을 흐림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부패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이러한 그의 극단적인 ‘무교회주의’는 교조화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개혁가적 성격과 상통하고 있다. 김교신은 이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일생을 지속적으로 신앙적 고민을 하였고 이러한 경향에 대해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史雄)는 김교신이 진정한 최선의 무교회주의자라고 평하였다.⁴⁾ 김교신이 만난 우지무라 간조는 무교회 기독교의 창시자로 “동경대보다 크다”고 할 정도로 근대 일본정신사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천황의 교육칙어에 최고의 경의를 표시하지 않아 불경죄로 교직에서 쫓겨나 일본제국주의를 비판하며 전쟁 반대를 외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정신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⁵⁾

김교신은 18세에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에는 3·1운동에 참여하였으며 태극기를 만들어 교회와 보통학교에 보낸 단순 참가자로만 전해지지만 3·1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숙부의 집이 가택수사를 받게 되었고 당시 권총과 대한제국 시기 교과서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어 피신 차 일본 유학을 하였다고 한다.⁶⁾

김교신은 ‘조선성서연구회’를 만들어 희랍어를 배우면서 원문으로 성서 연구를 하고 한국 민족의 영혼을 구하는 모임과 사업을 계속하였다. 1927년 7월에는 <성서조선>을 월간지로 발간하였고, 신앙 활동과 함께 사립고등보통학교의 교사생활을 하면서 교육과 신앙을 통한 애국자적 모범을 보여주었다. 특히 손기정의 마라톤 코치로서 동경 예선까지 따라갔던 사실에 대해 손기정은 “이 예선에서 중간지점부터는 선두가 되었는데, 그때 선도차에 탄 김교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손기정은 이 스승의 눈물만 바라보며 뛰어서 드디어 우승했다 … 나는 지금까지 선생님 만큼 크시고 참다우신 교육자 그리고 애국을 여러 면으로 스스로 실천하신 분을 본 일이 없다. 참으로 선생님은 크신 분 같다”고 회상하였다.⁷⁾

또한 동경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한 손기정과 양정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김교신의 1935년 11월 3일자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고 있다.⁸⁾

오후 1시에 출발하는 손기정을 응원하기 위하여 양정 선수 및 동창생들과 함께 자동차로 육향교까지 따라 왕복하니 이것이 2시간 26분 42초로써 인류 유사 이래의 최고기록을 짓게 될 줄이야 어찌 예측하였으랴. 뛰는 도중에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도록 자동차를 앞서

3) 김정환, 『김교신』, 한국신학연구소, 1980, 19-21쪽

4) 박찬규, 『김교신 거대한 뿌리』, 도서출판 익두스, 2011, 23쪽

5) 박찬규, 앞의 책, 23쪽

6) 전인수, 『김교신 평전: 조선을 성서 위에』, 삼원서원, 2012, 18쪽

7) 김정환, 『김교신』, 한국신학연구소, 1980, 19-21쪽

8) 박찬규, 앞의 책, 105쪽

몰아 달라”는 우리 선수들의 요구에는 차창으로 뛰는 선수에게 가편하려는 교사의 눈시울에 뜨거운 눈물이 자주 돌지 않을 수 없었다.⁹⁾

이와 같이 김교신은 무교회주의운동 뿐만 아니라 일제시기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불어넣어주는 훌륭한 선생님으로서도 맹활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는 여러 방면의 운동 가운데 마라톤 선수를 키워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보여주어 나라 없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다. 또한 출전 선수가 자국의 국기를 달지 못하고 침략국의 국기인 일장기를 달고 뛴 식민지 국민의 설움을 세계만방에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자유주의사상의 소유자였던 岩村 교장은 김교신이 경기중학에서 행했던 교육방법은 일본의 <松下村塾>보다 더 뛰어났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성서조선사건’으로 1년간의 옥고를 치루고 만주까지 가서 신앙 동지를 규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발진티프스에 감염되어 45세에 사망하였다. 그는 짧은 생애 동안 민족적 기독교의 실천 방안 모색, 민족 교육의 실천, 높은 차원의 애국을 기독교의 이상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였다.¹⁰⁾

III. 김교신과 무교회주의

김교신은 학창시절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이나 윤리적 가르침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기도와 기적은 미신 혹은 비과학적이라고 보아 유교적 윤리에 충실하였으며 자연과학을 전적으로 신뢰한 합리적인 사람이었다.¹¹⁾ 김교신이 기독교를 믿었던 것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추구하고 이상적 생활과 사회를 건설하려는 유교적 이상이 밑받침되었다. 즉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자기완성과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가정, 사회, 국가, 세계와 하늘로 확대되어 나아간다고 생각하고 몸소 실천하였다. 그는 공자의 인생 역정을 본받으려 하는 가운데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그는 유교에서 말하는 완성의 길을 성령의 권능을 빌어 도달하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유교에서의 자기 수양으로서의 인간의 가능성, 선함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자신에 대한 절망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다시 말해 그는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의 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게 되면서 유교적 인간관은 철저히 극복되었다.¹²⁾

김교신은 일본 유학시절 학과 공부보다 성서 공부에 더 집중하는 가운데 우치무

9) 박찬규, 앞의 책, 105쪽에서 재인용

11) 전인수, 『김교신 평전: 조선을 성서 위에』, 삼원서원, 2012, 18쪽

12) 전인수, 앞의 책, 28-29쪽

라의 성서연구회에서 정상훈, 함석헌, 양인성, 유석동, 송두용을 만났다. 그는 스승 우치무라와 도쿄사범학교에서 박물학을 전공하면서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이 남달랐다. 이를 통해 일반적인 기독교가 아닌 무교회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삶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집안의 종손이 유교적 가치관을 버리고 서양의 종교를 수용한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는 조롱을 당하고 제사 문제로 문중에서 제적당한 것 같다고 전해진다.¹³⁾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김교신은 일본에 대해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침략자와 조선이 반드시 배워야 할 근대화된 강한 선진국으로서의 2중적 인식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일본이 용납하기 어려운 원수였으나 기독교를 접하면서 점차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일본을 용서해야 하며 조선이 멸망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일본에서의 생활을 통해 접한 일본인들은 어떤 면에서는 조선인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인식에는 조선인은 2등 국민이라고 여겨졌고, 김교신 역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다. 따라서 조선인과 구별되어 세계인으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그는 조선인과 일치시키고 조선인이라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사해동포라는 생각도 ‘나’ 자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철저한 자기인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다.¹⁴⁾

김교신은 1927년 7월 일본에서 만난 지인들과 동경에서 ‘조선을 성서화’하기 위해서 <성서조선>을 창간하였다. 그는 예수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였으며 1930년 5월부터 주필로서 집필, 교정, 인쇄, 우송 등에 관한 업무 일체를 관할하면서 무교회주의의 주요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다.¹⁵⁾ 김교신은 중학교 교사로서 <성서조선>의 주필을 맡았으며 일요일엔 성서집회를 꾸준히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 주변에 있는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일인다역의 생활을 하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¹⁶⁾ 그와 가까웠던 송두용은 “도대체 그는 무슨 힘으로 아니 그보다도 무슨 時間에 그 모든 일들을 하였는지 나는 이해조차 어려웠다”¹⁷⁾고 하였다.

김교신은 성서를 가장 귀하게 여겨 성서의 참뜻을 풀이하여 조선에 전하는 것이 조선에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선이 성서의 진리 위에 설 때 섭리사적 의의를 다하고 신에게 영광을 바치는 민족과 국가가 된다고 믿어 ‘성서와 조선’, ‘성서를 조선에’, ‘조선을 성서 위에’로 구성된 애국적인 <聖書朝鮮의 解>를 집필하였다.¹⁸⁾

聖書와 朝鮮 : 고인(古人)도 서중(書中)에 천종록(千鐘錄)이 스스로 있다 하여 양전미답

13) 전인수, 앞의 책, 32-33쪽

14) 전인수, 앞의 책, 38-39쪽

15) 전인수, 앞의 책, 43-44쪽

16) 송두용, 「김교신과 한국의 무교회」, 노평구 편, 『김교신과 한국: 신앙, 교육, 애국의 생애』, 경지사, 1975, 25쪽

17) 송두용, 「김교신과 한국의 무교회」, 노평구 편, 앞의 책, 26쪽

18) 김정환, 앞의 책, 30-31쪽

(良田美畝)보다도 서적의 고귀한 까닭을 도파(道破)하였거니와, 서적이 귀한 것일진대 서중(書中)의 서(書)인 성서(聖書)가 가장 고귀한 서책(書冊)이다. 이는 우리의 편견이 아니라 성서 자신이 증명하는 바이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다. 인도의 심라는 피서(避暑)의 극락이요, 이태리의 리비에라 지방은 피한(避寒)의 극락이라 하나, 사시백년(四時百年) 일하며 먹고살기에야 조선(朝鮮)보다 더 좋은 데가 지구위에 다시 있으랴? 비록 백두산이 없었다 하고 금강산이 생기지 않았다 하여도 조선은 다시없는 조선이라고 생각하니 이는 물론 우리의 주관(主觀)이다. 세상(世上)에 제일 좋은 것은 성서(聖書)와 조선(朝鮮), 그러므로 성서와 조선.

聖書を 朝鮮에 :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고 싶으나 인력(人力)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혹자는 음악을 조선에 주며, ... 오직 우리는 조선에 성서를 주어 그 골근(骨筋)을 세우며, 그 혈액(血液)을 만들고자 한다. ... 더 좋은 것을 조선에 주려는 이는 주라. 우리는 다만 성서를 주고자 미력(微力)을 다하는 자(者)이다. 그러므로 성서(聖書)를 조선(朝鮮)에.

朝鮮을 聖書위에 : 과학적 지식의 토대(土臺) 위에 새 조선을 건설하려는 과학조선(科學朝鮮)의 운동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음이 아니요, 그 인구의 8할 이상을 차지한 농민으로 하여금 덴마크식 농업조선(農業朝鮮)을 중흥하려는 기도(企圖)가 시선(時宣)에 불합(不合)함이 아니며, 기타 신흥도시를 위주(爲主)한 상공조선(商工朝鮮)이나 사조(思潮)에 과도치는 공산조선(共產朝鮮) 등이 다 그 진심 성의로만 나온 것일진대 해로울 것도 없겠지만, ... 이러한 구형적(具形的) 조선(朝鮮) 밑에 영구한 기반(基盤)을 놓아야 할 것이니 그 지하(地下)의 기초공사(基礎工事)가 곧 성서적 진리를 이 백성에게 소유시키는 일이다. 넓게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위에 세우라.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위에.(1935년 4월)¹⁹⁾

1927년에 창간된 <성서조선>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론(世論)을 펼친 순수한 성경연구의 잡지가 아니었다. 그의 동료들이었던 이용도, 최태용, 김인서가 조선 교회의 신앙이나 조선 기독교 자체를 문제삼았지만, 김교신은 조선 문제가 더 큰 의미를 지녔으며 일제치하의 조선 식민지 문제를 고민하였다.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항하여 조선의 반식민사관의 입장에서 조선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였다. 조선인의 태만함, 게으름, 불신용, 부정직 등에 대해 안타까워하였고 학생들에게 신의를 바탕으로 ‘조선의 갱생’을 강조하였다.²⁰⁾

개인과 가정의 구원, 사회와 국가의 융성은 모두가 건전한 도덕 생활의 기초 위에 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건실한 도덕적 생활에 돌아오기만 하면 난마같이 된 당시의 유대 민족이라도 갱생의 업이 땅을 짚고 헤엄치기보다 용이한 일이라는 것이 저들의 확신이요, 기독교의 항구불변의 원칙이다.²¹⁾

19) 김정환, 앞의 책, 32-33쪽에서 재인용

20) 전인수, 앞의 책, 46쪽

21) 『김교신전집 I』, 197쪽, 전인수, 앞의 책, 47쪽에서 재인용

오후 7시부터 함석헌의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제1강, 역사 이해, 사관과 성서적 사관, 세계사의 윤곽 등의 항목에 거쳐 만 3시간의 연속 강연이었으나 강의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일순간을 보낸 것 같이 시간의 흐름을 애석히 생각하였다. 조선역사 반만년에 역사도 길었거니와 역사가도 많았다. 하지만 조선 백성에게 사관(史觀)을 준 이는 없었다. 이날 전인미답의 영역에 한 발을 내디더 반만년사의 사관을 제시하였건만 2천만 중에 이것을 들은 자는 20명 미만이고, 이것을 읽을 자도 200인에 미치지 못하니 무슨 덧붙일 말이 있겠는가. 오직 일이 기이함을 마음에 새길 뿐이다.(1933년 12월 31일, 일)²²⁾

김교신은 조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지 못한 죄로 인식하여 이를 해결해야만 조선의 갱생과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그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바로 잡고 조선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변화되며 신앙으로 설 때에만 영구하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정치, 경제보다 먼저 선결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성서를 통해 조선의 갱생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성서위에 조선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조선인이 성서의 진리로 살고 하나님 앞에 선 민족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 인식하였다. 다시 말해 조선인을 도덕적이고 영적인 백성으로 만드는 ‘조선의 성서화’가 조선과 조선인의 문제를 타개하는 방책이며 민족의 독립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²³⁾

그 후 그것을 그 동지의 한 사람이요 지금은 고인이 된 김교신군이 <성서조선>지에 연재하였다. 광고도 선전도 하지 않은 그 잡지는 독자가 가장 많을 때에도 이백 명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그나마도 압박자의 뜻에 거슬려 폐간을 당하게 되는 때에 이 역사도 이 이유의 하나였고 책은 모두 압수되어 없애 버린 바 되었으니 이 고난의 역사는 바빌론 거친 들에서 지나가는 바람결에 잠깐 들렸다가 들 끝에 사라지는 외로운 포수(捕囚)의 신음성(呻吟聲) 같이 아주 없어져 버린 듯하였다.²⁴⁾

함석헌의 위의 글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를 실은 『성서조선』 제66호가 발행금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김교신과 그 동료들의 무교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신앙운동은 일제 식민지 하의 독립운동의 한 방략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IV. 맺음말

김교신의 생애와 사상의 민족정신사적, 민족교육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민족적 기독교 이념의 탐색 및 생활사이고, 둘째는 종교적 신앙과 교육

22) 박찬규, 앞의 책, 93쪽에서 재인용

23) 전인수, 앞의 책, 48=49쪽

24) 함석헌,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1950, 서문; 박찬규, 앞의 책, 97-98쪽에서 재인용

적 실천의 이상적 조화이며, 셋째는 교육에 있어서의 인격적 감화력의 발현이고, 넷째, 개인잡지를 통해서 소신을 밝힘으로써 민족사회의 온 성원을 교육의 대상으로 포섭한 일이며, 다섯째, 그의 동지 독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상을 다음 세대에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교신은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식 중에서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기여해야 할 고유, 독특한 세계사적 사명을 정립하고 이러한 민족의 '존재이유'에서 민족의 세속사적 독립을 쟁취하려한 것이 다른 점이다. 몇 천년 동안 한반도에 살아온 한민족의 역사에 대해 다른 외국의 역사가와 신학자들이 설명해줄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민족이 부여받은 고유한 세계사적 섭리를 깨우치고자 노력하였다.²⁵⁾ 즉 민족을 통해서 신의 섭리를 자각하고 민족을 통해서 세계사의 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생각은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깊이 되새길 교훈이다.

25) 김정환, 앞의 책, 26-27쪽